

# 清州市 옷방귀음집의 生活空間 變容에 관한 調查研究 -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

## A Research on the Spatial Change of the Main Room and Kitchen of Traditional Utbangkkeokeum House in Cheongju City

김해리\*  
Kim, Hae-Ri

김태영\*\*  
Kim, Tai-Yo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patial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in rooms (Anbang) and kitchens of traditional Utbangkkeokeum houses in Cheongju city, located on the central inland of Korea. These houses consist of a main house (Momchae) and a single-wing house (Nalgaechae), creating an ㄱ-shaped plan. The kitchen is in the front of the Nalgaechae, and the Anbang is at the rear. For the Momchae, the main hall (Daechung) is next to the Anbang, which is at the end of the Nalgaechae, and the room (Gunnunbang) is situated across from the Daechung.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se houses have been conserved and altered from their original forms. As a result of alterations, many changes have occurred to the main room and kitchen spaces. The traditional main room is connected with two rooms (Utbang and Araebang), new standup kitchens are introduced, and floor heating systems are installed. The Anbang has maintained its sedentary lifestyle and the space for major daily activities such as sleeping and TV viewing. Also, TV viewing is a distinctive feature for residential purposes and the bedding is located in such a position that it is easy to observe any exterior movemen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layout of the standup kitchen has been altered to maintain the previous circulation,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entrance. Also, the kitchen and dining room were used together, and the size of these rooms has been partially increased from the original module in different ways for each case.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Utbangkkeokeum houses of Cheongju city have been spatially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previous lifestyle.

Keywords : Traditional Korean House, Utbangkkeokeum House, Change, Main Room (Anbang), Kitchen, Cheongju City  
주요어 : 전통한옥, 옷방귀음집, 변용, 안방, 부엌, 청주시

### I. 서론

개항 이후 근대적 문물이 유입됨에 따라 한옥은 근대화 된 삶의 양태를 반영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본래의 생활방식이 지속되기도 하고, 근대적 서구인의 생활방식을 수용하기도 하면서 생활공간의 변용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 주거건축의 뿌리인 한옥이 현대의 주생활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변화되는가 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한옥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 구도심지역에 현존하는 ‘ㄱ’자형 한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옷방귀음집에 대하여, 건축적인 사항에 있어서의 변용 요인을 살펴보고, 내부공간에서의 주생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생활공간의 변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청주지역 구도심 일대에 현존하는 한옥조사<sup>1)</sup> 이후, 옷방귀음집의 평면구성을 갖추면서 잘 사용되고 있는 주호를 택하게 되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는 청주 구도심인 성안동·중앙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신축경과연도가 50년 이상 된 주호들이다.

### II. 조사대상주호 선정 및 원형추정

#### 1. 중부지방형 옷방귀음집 평면의 특징

옷방귀음집은 안방을 중심으로 부엌과 대청이 ‘ㄱ’자로 결합되어 단위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와 서울 일대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가구(架構)방식으로, 이들은 평면뿐 아니라 지붕구조 또한 기존의 옷방 상부에서 ‘ㄱ’

1) 청주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유재·근현대건축사연구실(2007), 연구보고20 청주 도시한옥 사용실태 및 실측조사 보고서, 청주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유재·근현대건축사연구실(2009), 연구보고26 청주 도시한옥 사용실태 및 실측조사보고서2

\*정희원(주저자),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정희원(교신저자),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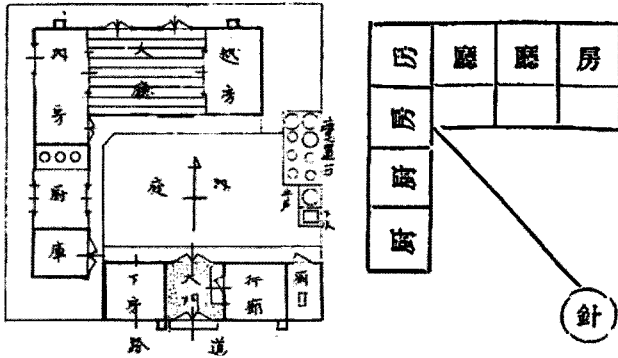


그림 1. 경성지방의 재래형 방의 배치도와 곡척제택도  
(좌-박길룡(1941), 朝鮮と建築, 20(4), 우-김홍식(1988),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잡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6) 재인용)

자로 꺾여 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sup>2)</sup>

‘부엌-안방-대청-방’이라는 평면구성의 특징은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의 그림과 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28년에 「中部朝鮮地方住家에 對한 一考察」에서 박길룡은 중부지방과 경성지방의 가구법을 총괄하여 ‘중부지방 가구법’으로 불렀다.<sup>3)</sup> 이러한 조선 민가에 대한 글은 조선과 건축(1941) ‘경성지방의 재래형 방의 배치도<그림 1-좌>’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박길룡은 이 그림을 경성지방형 재래식주가의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하면서, “배치는 부지의 중앙은 비워 중정으로 하고, 북쪽방향에 母屋(이하, ‘안채’)을 ㄴ형으로 배치, 부속실은 별동으로 하여 남면 도로측에 세운다. 안채에는 內房(이하, ‘안방’), 대청, 越房(이하, ‘건넌방’), 주방, 高(庫)간이 있고, 부속실에는 대문, 下房, 行廊房, 廁(厠)간 이라고 하는 상태로 거주한다. 안방은 집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주인부부의 침실로 사용한다. 건넌방은 아들 부부의 침실이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들이 15-16세가 되면 반드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도 노부부가 건넌방을 사용하였다. -(중략)-”라고 설명하였다.

중부지방 가옥의 대표적 유형인 옷방꺾음집에 대한 내용은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잡이에 대한 연구」에서 민택삼요의 곡척제택도<그림 1-우>와 함께 “畿湖則 舉皆 曲尺制 故로 圖此하야 以備 參考焉이라” 곧 “京畿 湖西(중부) 지방에서는 거의 모두 곱은자로 꺾어서 지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옷방꺾음집은 몸체는 전퇴집으로 하고 날개채는 맞걸이집으로 잡았으나, 부엌을 날개채 맨 앞에 배치하고 뒤로 안방과 옷방을 차례로 놓으며 꺾어져서 그 칸의 대청, 맨 끝에 건넌방을 둔다.”고 언급된다. 여기서 나타난 옷방꺾음집의 평면구성은 박길룡의 중부지방가구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이로써 옷방꺾음집을 경기를 비롯한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가옥유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조사대상 주호의 일반현황

2007년 6월 청주 도심한옥조사 결과, 청주지역 구도심에 현존하는 한옥 중 기능·구조적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판단된 것은 39건이었다. 이들 중 ㄱ자형 한옥은 29건으로 나타났으며, 14건의 ㄱ자형 한옥 실측이 이루어졌다.<sup>4)</sup> 2008년 12월 현장조사 결과, 29건 중 1건이 멸실되어 28건이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6건의 실측이 이루어져 총 20건의 ㄱ자형 한옥이 실측되었다.

실측도면의 분석 및 2009년 현장관찰조사를 통하여 옷방꺾음집으로 판단된 주호는 12건이며, 그중에서도 가옥 내부의 실별 사용실태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내부 가구배치의 현황 실측 및 사진촬영, 인터뷰 조사가 가능하였던 9건의 옷방꺾음집을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것이다<표 1>.

조사대상 주호는 1959년 이전 신축된 것으로, 건립되어

표 1. 조사대상 주호 건축개요

항목 주호 번호	소재지	신축 연대	대지 면적	구체 연면적	칸의 기본모듈	전입 연도	소유 관계	세대 유형	세대 구성원	전입 방식	생활공간의 사용							평면 형식	
											부엌	안방	대청	방1	방2	방3	화장실		
																	내부		외부
01	문화동 15-29	1935	207.30	75.30	2.70×2.57	1970	지=건=사	3대	6	서	●	●	○	●	●	●	○	●	4LDK
02	서운동 20-27	1959	118.60	44.54	2.30×2.31	1995	지/건/사	독거노인	1	북	●	△	○	●*	△*			●	2LDK
03	서운동 24-9	1959	149.70	48.20	2.60×3.06	1977	지=건=사	2대	2	북	○	●	○	●	●			●	3LDK
04	서운동 27-7	1952	246.50	65.00	2.42×3.66	1981	지=건=사	2대	3	남	●	●	●	△			●	△	2LDK
05	남주동 57	1942	285.00	75.09	2.35×2.44	1995	지/건=사	2대	4	서	●	●	○	●	●		●	△	3LDK
06	남주동 107-1	1935	211.90	58.50	2.67×2.70	1978	지=건=사	노부부	2	동	○	●	○	△				●	3LDK
07	석교동 187	1936	199.90	73.05	2.46×2.45	1985	지=건=사	3대	8	동	●	●	●	●	●	●	●	△	4LDK
08	수동 108-3	1943	551.60	67.21	2.43×2.47	1999	지=건/사	노부부	2	서	●	●	○	△			●		3LDK
09	수동 288-16	1958	39.70	58.60	2.40×2.40	1990	지=건/사	노부부	2	남	●	●	○	○	△		●	△	3LDK

소유관계: 지-토지주, 건-건축주, 사-사용자

● 매우활발 ● 활발 ○ 보통 △ 거의 안함 \* 안채에 셋집수용

2) 김민선(2003), 도시형한옥의 구축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쪽

3) 김명선, 이정우(2003), ‘중부지방가구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 161-169

4) 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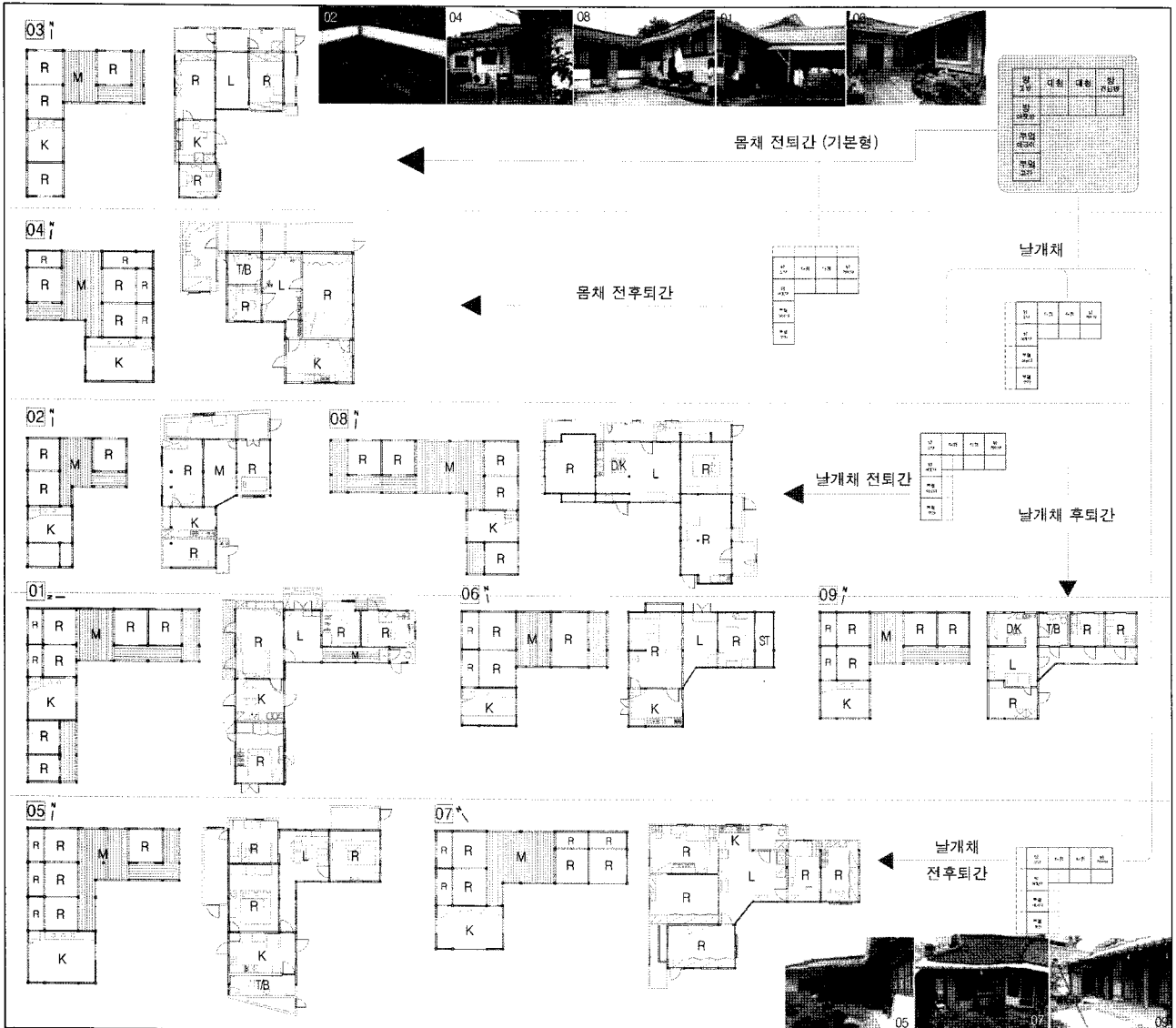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 주호의 원형추정 평면도와 현황 실측 평면도

(원형추정 평면도는 실측 평면도 작성(2007.08월) 이후, 거주자와의 인터뷰 및 재조사(2009.04-09월)를 통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또한, 김홍식의 논문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짜이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된 옷방귀음집 도시 및 설명을 참고하여 청주시 옷방귀음집의 계통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진지 50년 이상 경과한 목조주택이다. 일반적으로 대지면적은 200 m<sup>2</sup> 내외이고, 원형부분<sup>5)</sup>이라고 생각되는 칸으로 구획된 구체(構體)연면적은 65 m<sup>2</sup> 내외이며, 칸의 기본모들은 8-9자(2.4-2.7m)이다.

거주자의 전입연도로 보면, 현재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도시한옥에 거주하고 있으며, 길게는 40여 년, 짧게는 10년 정도의 거주기간을 갖는다. 세대유형은 2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다섯 주호로 많았고, 노부부가 거주하는 경우 세 주호,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한 주호로 나타났다. 각 주호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거주연한이 20년 이상인 다섯 주호에서 토지주와 건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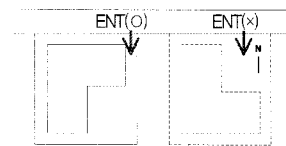


그림 3. 접도와 진입 위치

사용자가 일치하였으며, 거주연한이 20년 미만인 네 주호는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대지로의 진입방식은 크게 동서도로이면서 북쪽진입(02·03주호), 동서도로이면서 남쪽진입(04·05주호), 남북도로이면서 동쪽진입(06·07·09주호), 남북도로이면서 서쪽진입(01·08주호)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동서도로이면서 북향배치의 북쪽진입을 하고 있는 주호는 한 주호도 나타나지 않아, 안채의 좌향에 있어 남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건립 당시의 원형부분 추정에는, 지붕형태를 통하여 외벽 구체 선을 규정하고, 서울지방형의 ‘ㄱ’자형 평면유형에 따른 실 구성을 전제로 하면서 2007년 실측도면 및 2009년 현재 거주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생활공간의 사용현황을 보면, 3LDK 형식이 다섯 주호로 가장 많았고, 4LDK와 2LDK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두 주호로 나타났다. 부엌과 안방을 위주로 공간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01, 02, 03, 06주호에서 외화장실의 사용빈도가 아직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실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원형추정 도면의 작성

생활공간의 변용 요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조사대상 주호의 실측도면을 토대로 실거주자와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서, 원형추정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조사대상 가옥의 예전의 모습과 쓰임새를 알아봄으로써 무엇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무엇이 변화하였는가를 보다 자세히 알고 생활공간의 변용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원형추정은 실거주자에게 실측된 현재의 도면을 이해시키고, 인터뷰를 통하여 개조 및 변경된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살아온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1935년도에 건립되었고, 거주연한이 30년 이상 되어 개조 및 변경 이전의 가옥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남주동 107-1 주호(06)를 대표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옥은 안방, 부엌,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은 예전에는 장지문에 의하여 아랫방, 옷방, 그리고 이들에 딸린 반 칸 규모의 작은 방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명절이나 제사 등으로 가족들이 많이 모이거나 손님들이 방문하는 등 유사시에는 아랫방과 옷방의 문을 열어 공간을 넓게 사용하였으며, 작은 방은 수납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옷방에는 작은 방뿐 아니라 그보다 작은 규모로 구체 벽면에 달아내어진 오실<sup>6)</sup>이라는 수납공간이 있다. 아랫방에는 다락이 있어 부엌의 집기부터 각종 살림살이를 수장하는 공간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아랫방과 옷방, 작은 방을 한 실로 연결하여 두 칸 이상의 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호의 안방은 계절에 따라 공간 사용이 바뀌는데, 겨울에는 아랫방과 옷방 사이에 난로를 설치하여 보조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난로를 제거하여 실을 사용한다.

부엌에는 안방 쪽으로 아궁이가 있었고, 아궁이 윗부분에는 아랫방으로 음식을 내어주고 받는 작은 문이 있었

다. 현재는 그 부분에 안방과의 동선이 편리하도록 사람의 이동이 가능한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면서 본래 구들이었던 기존의 방뿐만 아니라 대청마루에도 파이프 온돌을 설치하여 보일러 난방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에 두 짝 박여닫이 판장문이었던 주출입구를 한 짝 미서기문으로, 바닥마감 재료는 흙에서 시멘트로 변경하였다.

나머지 여덟 주호의 원형추정 평면도 작성도 이 주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현황실측 평면도를 토대로 기둥의 위치를 파악하여 기존 구체 윤곽 및 각 실의 구획을 추정하였으며, 다음으로 내부공간 사용실태 및 실거주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각 실의 과거와 현재의 쓰임새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원형의 추정이 가능하였다.

III. 조사대상 주호의 생활공간 변용 요인

1.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한 개실의 연결 및 확장

조사대상 주호별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내부공간의 변경을 살펴보면, 개실의 연결, 골방 및 텃간으로의 개실의 확장, 그리고 단위공간 규모의 증대이다.

기존 개실의 기본모듈은 일반적으로 8-9자(2.4-2.7m)인데,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생활방식 변화, 생활용품의 증가 등으로 보다 넓은 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주호들은 안방을 사용함에 있어 개실의 연결 및 확장을 함으로써 한 칸 반 혹은 2칸 이상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대상 주호 중 07주호<sup>7)</sup>와 08·09주호를 제외한 모든 주호에서 개실의 연결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부분적인 증축을 통한 개실의 확장, 기존 구체에서 담장사이 공간으로의 증축을 통하여 창고·보일러실·부엌·화장실 및 욕실 등 제실의 설치, 별동의 증축 등 주택의 규모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 비해 확대된 살림살이 규모와 경제성을 고려한 셋집의 수용 등으로 기존의 주택규모로 해소할 수 없는 공간사용의 문제로 증개축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각 가옥별로 주로 안방에서 나타난다.

또한 과거에 비해 늘어난 살림살이의 규모로 기존의 단위 공간 내에서 수납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활공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01, 05, 08주호에서는 기존의 텃간을 내부화 하여 생활공간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03, 06주호에서는 건넌방에 딸린 기존의 텃마루를 수장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개실의 연결 및 확장에 의한 내부 생활공간 규모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옛 다락공간, 벽장 등 기존의 수장공간이 유지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조사대상 주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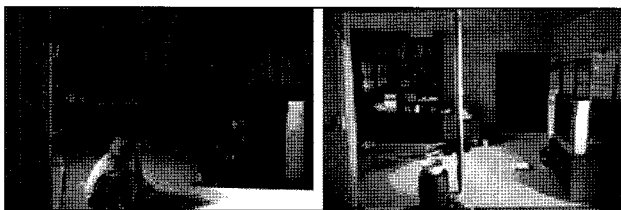


그림 4. 남주동 107-1 주호의 여름과 겨울 안방에서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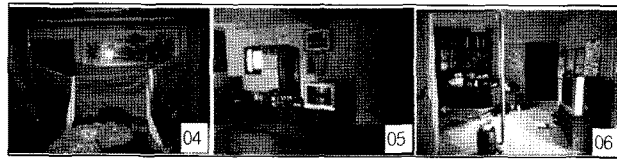
6) ‘오실’이라는 실 명칭은, 일본어 ‘押入れ(오시이레); 벽장, 반침’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7) 07주호는 개실의 분할 사례로, 가족구성원에 따른 실의 수요로, 기존 옷방과 아랫방 사이의 장지문을 제거하고 아랫방 위치를 할머니의 안방으로 사용 중이다. 옷방 부분은 손녀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실의 일부를 증축하여 실 규모를 확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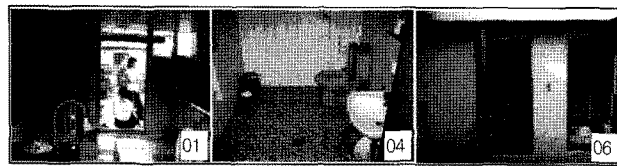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 주호별 개조 및 변경 현황

구분	주요모			주설비					부엌 위치 변경
	개실의 연결	개실의 확장	뒷간의 내부화	난방방식 교체	부엌 입식화	화장실 개조	욕실 설치	창호 교체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04	●	●		●	●	○	○	●	
05	●	●	●	●	●	○	○	●	
06	●	●	●	●	○	●	●	●	
07		●		●	●	○	○	●	●
08	●	●	●	●	●	○	●	●	●
09		●		●	●	○	○	●	●

난방방식변경-● 전체 바닥난방 교체/○ 기존 구들부분만 교체  
 부엌의 입식화-● 바닥 레벨을 내부와 일체화/○ 기존의 단차 유지/●  
 부분적인 바닥 레벨 높임  
 화장실 개조-● 기존 외부화장실 수세식 개조/○ 내부화장실 설치  
 욕실 설치-● 외부욕실 설치/○ 내부욕실 설치  
 창호교체-외단열을 위해 세시창 설치 및 유리 끼움  
 뒷간의 내부화-기존 뒷마루에 문 달아내어 내부화, 수장 공간 해결



(a) 개실의 연결 및 확장



(b) 주설비공간의 개조-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의 사용



(c) 기타 변경 사항-창호교체, 뒷간의 내부화

그림 5. 조사대상 주호의 변경 현황

서 내부공간에 계획되어진 수장공간은 안방의 다락과 안방을 포함한 여타의 방들에 있는 벽장이 있다. 안방 다락의 수장공간으로써의 지속적인 사용은 01, 05, 06주호에서 볼 수 있다. 또한 02, 06, 08, 09주호에서는 기존의 벽장을 활용하여 이불이나 생활용품을 넣는 등 수장기능을 해결하고 있다. 다락과 벽장은 기존 구체의 범위 내에서 생활공간의 면적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2. 현대 주생활방식을 반영한 주설비공간의 개조

주호별 생활공간의 또 다른 변용 요인으로서는 주설비공간의 개조 및 변경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크게 난방방식의 교체, 부엌의 입식화, 내외부 화장실의 개조로 구분된다.

예전에는 부엌의 아궁이를 통해 각 방의 난방이 이루어졌으나, 연료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모든 주호의 난방방식이 재래식 온돌에서 온수 난방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난방방식의 적용 부위에 있어서는 파이프 온돌을 기존의 구들 부분에만 설치하느냐 주호 내부공간 바닥 전체에 설치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01주호에서 09주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호에서 바닥 전체에 교체된 난방방식을 적용하였다.

부엌의 입식화는 난방방식과 더불어 조사대상 주호 전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이다. 수도가 주호 내부로 들어오고 가스설비를 갖추면서 부엌 작업행정도 변화하게 되었다. 부엌을 입식화 하는데 있어서 03, 04, 05, 07, 08, 09주호는 부엌과 주호 내부공간의 바닥 레벨을 일체화함으로써 사용상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01, 02주호는 기존의 다락을 유지하면서 부엌에도 바닥 난방을 하기 위해 파이프 온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30 cm 정도 바닥을 돋우게 되면서 내부공간과의 단차가 줄어들었다. 06주호는 재래식 부엌의 바닥레벨을 유지하면서 입식화 한 사례이다.

내외부 화장실의 개조 또한 현대 주생활방식을 반영한 생활공간 변용이다. 과거 도시공간의 하부구조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대부분의 도시한옥 화장실은 대문에 인접하여 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주생활방식의 수용과 위생설비의 개선을 위하여 주호 전체에서 외부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조되었다. 화장실 및 욕실의 사용에 있어서 01주호는 내부 복도 끝에 변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04주호는 기존의 건넌방이 있던 위치에, 09주호는 대청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체 내의 개실을 화장실 겸 욕실로 사용하고 있다. 03, 05, 07주호는 기존의 구체에 욕실 겸 화장실을 부차하여 증개축 하였으며, 01, 02, 06주호는 외부에 별동으로 지어진 기존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면서 옆으로 욕실을 설치하여 간단한 세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현대의 주생활방식을 반영한 주호 내부 주설비공간의 개조에도 불구하고 외부화장실과 수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물에서 수도로의 변화, 내부공간에서의 물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주호 내부에도 수도 및 위생설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부에서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생설비에 있어서는 07주호 이외의 주호들이 외부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01, 02, 03, 06주호에서 외부 화장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옛 우물의 사용에서 각 주호에 수도가 보급되면서 수도가를 설치하여 외부공간에서 물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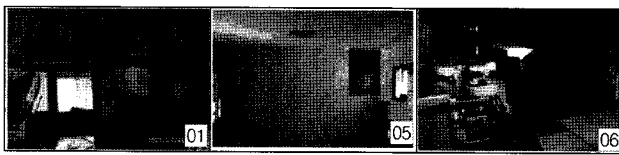
3. LDK 기능을 위한 부엌 위치 변경

내부 생활공간의 사용에 있어서 07, 08, 09주호와 같이 부엌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주설비 변경을 통해 실 기능을 전환하면서 가옥 내에서 부엌의 위치를 여타의 실로 옮겨간 것으로, 내부공간 사용에 있어서

표 3. 생활공간의 유지 현황

구분	수장공간		주설비		연등천장	
	다락	벽장	외부 화장실	수돗가	대청	다락
01	●		●	●	●	●
02		●	●	●	●	
03			●	●		
04			○	●		
05	●		○	●		●
06	●	●	●	●		●
07			○	●		
08		●		●	●	
0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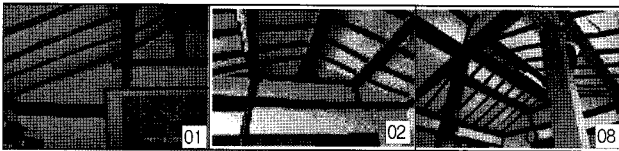
○ - 외부화장실이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음



(a) 안방의 다락 공간 사용



(b) 외부 화장실과 수도의 사용



(c) 대청의 연등천정 보존

그림 6. 생활공간의 유지 사례

현대적 주의식과 특히 연관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해당 주호들이 부엌의 위치를 변경한 이후 생활공간의 평면을 보면 이전에 비하여 식사, 취사, 거실기능이 통합된 공간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현대주택에서 거실과 주방, 식사공간이 일체화된 단위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조사대상 주호에서도 안방과의 연결 관계가 변화하면서 현대적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07주호의 경우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요구되는 생활공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안방을 구성하던 아랫방과 옷방을 별개의 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부엌의 사용에 있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위주로 하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사용이 쉽도록 대청의 일부공간을 할애하여 입식부엌을 설치하였다. 08주호의 경우 현재는 노부부만이 거주하고 있으나, 몇 년 전까지 2대가 함께 모여 살았던 가옥으로, 07주호와 마찬가지로 대청에 부엌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4인용 식탁을 배치하여 입식부엌을 구비하

였다. 09주호는 두 칸 규모의 안방 중 한 칸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하면서 3인용 식탁을 배치하였고, 나머지 한 칸을 거실로 개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주호가 부엌의 위치를 변경한 요인은 부엌, 식당, 거실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 실과의 연결이 보다 긴밀한 동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LDK 기능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실별 사용실태 및 생활공간 변용양상

##### 1. 안방에서의 기거양식

###### 1) 개인생활 위주의 공간 사용

안방에서의 기거양식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좌식 생활방식이 유지된다는 점이며, 주된 변화는 TV라는 생활용품의 도입과 관련한 것이다. 예전의 안방은 2대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가족들의 식사실, 손님 접대실 등의 역할을 겸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안방공간은 주호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모든 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띠었다.

현재 조사대상 주호의 안방은 기존 실 위치가 유지되는 경우(01-06주호)<sup>8)</sup>, 기존 실 위치를 유지하되 구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작아진 경우(07, 08주호), 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09주호)의 사용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기거양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는 개인생활을 위주로 공간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 위치가 유지되고 있는 01-06주호의 안방에서는 취침, TV시청 등이 주된 기거 양식이며, 따라서 이부자리와 TV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생활의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거주자들은 안방공간에서의 개인생활 영역을 기존의 아랫방 위치에 일차적으로 형성<sup>9)</sup>하면서 <그림 6>, 부차적으로 7-8자(2.1-2.4 m) 정도가 되는 방의 여유공간을 옷방 쪽으로 확보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수라든가 공간사용의 다양성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1칸 남짓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은 옛 한옥에서의 생활습속이 유지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모습은 거주자들에게 있어 여전히 안방이 심리적인 중심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해 준다.

한편 기존 실 구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작아진 07, 08주호와 실 위치가 변경된 09주호의 안방에서는 취침만이 주된 기거양식으로 나타났으며, TV시청은 거실이라는 별도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07, 08주호

8) 이들 중 서운동 20-27 주호(02)의 경우 현재 실거주자는 세입자 할머니 한 분이 독거를 하고 있는데, 취침 위주의 실질적인 기거는 건넌방에서 이루어진다. 거주연한이 길지 않은데다 독거인 연유로 살림살이가 간소한데 비하여 개실이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안방은 규모가 다소 넓어 거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9) 이러한 양상은 실 위치가 유지되고 있는 01-05주호, 실 기능이 변경되었어도 기존의 아랫방 위치에서 안방의 주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07 주호에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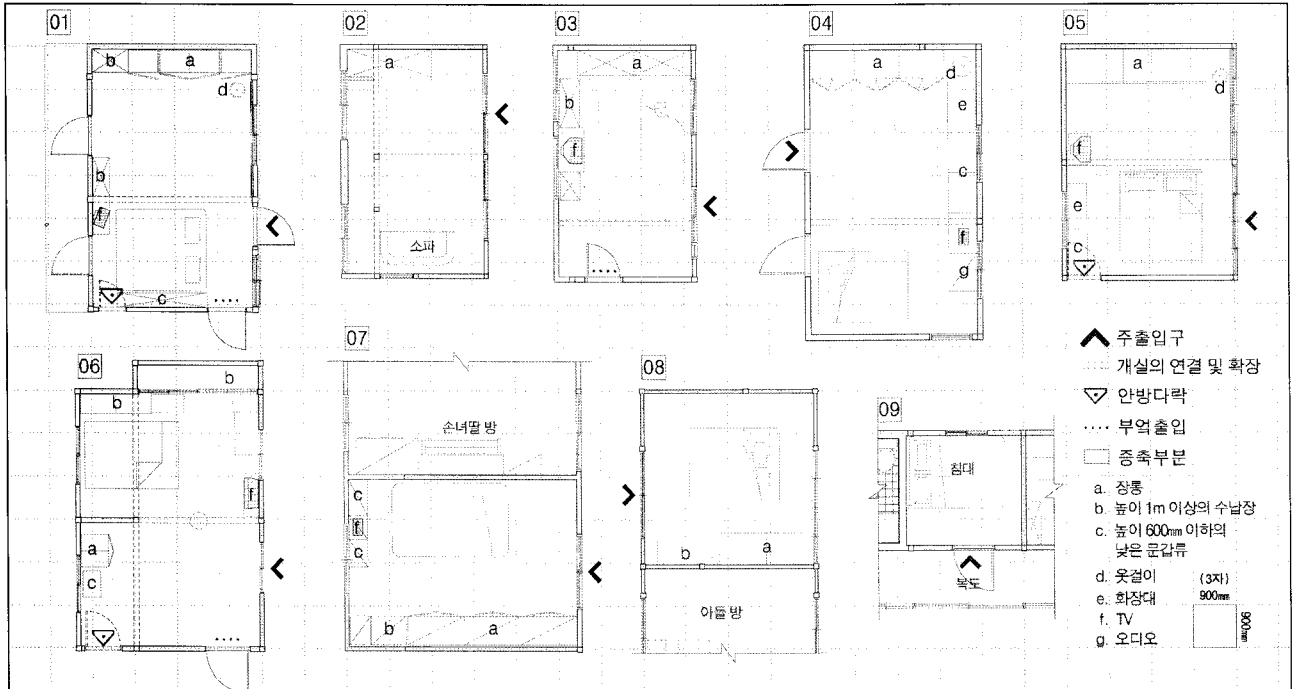


그림 7. 안방의 사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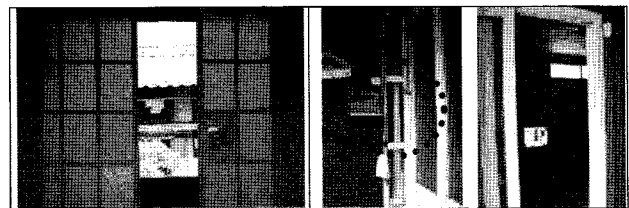
에서는 가족구성원 수와 관련하여 개실의 수요에 따른 칸의 분화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09주호에서는 기존의 내밀한 안방 위치보다도 남향한 건넌방의 위치 선호와 LDK 공간사용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2) 이부자리 패턴과 방어 의식

이부자리의 패턴을 통해서 기거양식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난방방식이 재래식 온돌에서 온수과이프 배관으로 변경되어 바닥 전체가 고른 온도를 유지하지만, 아직까지 아랫목의 개념을 유지하는 기거양식을 갖는 주호가 5건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갖고 있었다. 현재의 안방공간에서 나타나는 아랫목은, 예전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위계질서가 중시된 공간 사용보다는 위치적 상징성과 공간의 심리적 중심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개구부와 이부자리의 관계를 보면, 우선적으로 동향이나 남향에 대한 선호, TV시청을 위한 시선 처리 등에 의하여 출입방향과 수평한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서 취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조사대상 주호 전체적으로 이부자리 패턴에 있어 출입구가 직접 바라다보이는 위치에 머리를 둔다거나, 출입구에 근접하여 인근의 동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



(a) 경북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 (b) 03주호

그림 9. 눈곱재기창(좌)과 꾸음부분의 창호(우)

는 방식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외부 동정을 인지 혹은 감시하기 위한 방어적인 의식과 그로부터 형성된 생활행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안방의 꾸음부분 즉 기존의 아랫방 부분의 개구부를 통해 외부를 관찰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취침하는 기거 방식은 전통한옥 눈곱재기 창<sup>10)</sup>과 유사한 기능이 계승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03주호 안방의 개구부를 보면, 꾸음부분의 문 유리가 전체적으로 불투명 유리이고 일부분만을 투명 유리로 끼워 넣어 마당에서의 동정을 안방에서 살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현대주택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과 보안의 기능이지만 한옥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대상 주호에서는 결여될 수 있는 기능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옛 선조들의 생활 속 지혜가 쓰임새 있게 유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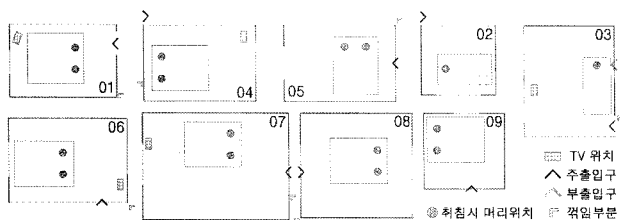


그림 8. 안방에서의 이부자리 패턴

10) 김왕직(2008),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35쪽: 겨울철 창호 전체를 열 경우 열손실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창이나 문 안에 다시 열 수 있는 창을 내거나 창호 옆 벽면에 밖의 동태만을 살필 수 있도록 낸 작은 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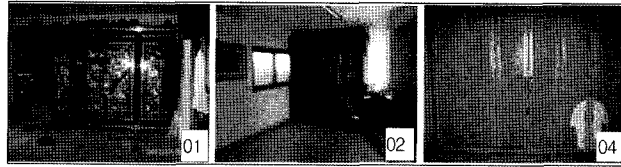


그림 10. 장롱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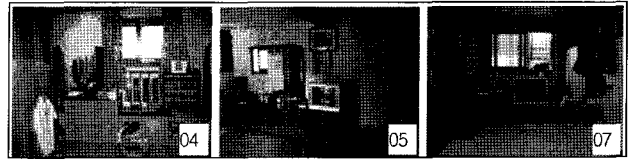


그림 11. 좌식생활 위주의 가구배치

조사대상 주호들의 안방이 과거 다목적 공간에서 개인 생활 위주의 공간으로 사용상의 성격이 변화된 것에 비하면, 개구부와 취침행태의 관계를 통해서도 예전의 기거 방식이 유지되는 생활공간 사용양상을 볼 수 있었다.

### 3) 개실 사용의 편의성을 증시한 가구배치

한옥에서의 가구 사용에 있어서, 주생활방식이 좌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자가 없으며 비치되는 기물은 규모가 다소 작다<sup>11)</sup>는 것이 전래의 특징이다. 또한 의류와 침구류의 보관을 위한 수납용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부피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배치되어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동되었고, 가구들을 아랫방에 주로 배치하고 옷방을 여유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주호 안방 가구의 종류를 보면 장롱, 높이 1m 이상의 수납장, 높이 600mm 이하의 낮은 문갑(창대높이 이하), 옷걸이, 화장대(입식, 좌식)와 TV, 오디오 등 가전 제품을 포함하여 7가지 정도이다. 이들 가구의 전면 폭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깊이가 75cm 이내의 치수를 가진다. 이 중에서 장롱은 현대 의복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 비해 크기가 커진 대표적인 가구이며, TV·오디오·입식화장대 등은 예전에 없다가 새롭게 추가된 가구들이다. 전통한옥에서는 좌식생활의 눈높이라든가 앉은 자세,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배려하여 이들 가구의 치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것보다 높이가 낮지만(5-6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구들은 수납성과 기능성을 중시한 기성품으로 예전에 비해 치수가 다소 커졌다.

가구 배치에 있어 기존의 실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01, 02, 03, 04, 05주호에서는 옷방 위치에 장롱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전래의 가구배치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통한옥에서 옷방에 가구배치를 할 때 의걸이장, 장롱, 높이가 높은 장이라든가 받침을 두는 등 의류와 침구류의 보관을 위한 수납용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던 것이 현재 생활습속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한옥이 가지는 기본적인 칸의 규모 때문에 가구를 최소화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개구부가 없이 벽면으로만 채워진 옷방 부분을 계획함으로써 채광과 환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가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통한옥 실내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높이 600mm 이하의 낮은 문갑도 장롱과 함께 모든 주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출입구 반대쪽의 벽면에 배치된다. 여기서는 조사대상 주호의 벽면사용상의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해당 벽면에 있는 개구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주호보다는 기존의 상태에서 창대높이를 조정한다든가, 창호 위치를 수평이동 한다든가, 창호를 일절 폐쇄하고 벽으로 사용하는 등 가구사용의 편의를 중시하여 기존 창호의 채광 및 환기 기능은 유지하면서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TV는 문갑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거나, 이에 근접하여 두고 사용한다.

한편, 기존 안방의 실 구획이 변경되어 한 칸 남짓의 공간을 사용하는 07, 08주호에서는 장롱과 수납장 혹은 낮은 문갑류 만이 간소하게 배치되어 있고, 실 위치가 변경된 09주호 안방에서는 침대가 배치되어 취침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여타의 가구들은 배제하였다. 09주호의 경우는 안방의 위치를 건넌방으로 옮기면서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되었지만 채광이나 환기 등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청이나 부엌과 개방적인 동선을 유지하면서, 안방을 취침 전용의 개인생활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들 07, 08, 09주호는 안방 위치를 유지하면서 개실을 연결하여 비교적 다양한 생활 가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호들과는 달리 안방가구를 최소화 하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가구들을 거실을 비롯한 기타의 방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안방 가구의 종류와 배치유형을 살펴본바, 의복에 있어 양장을 사용하면서 그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져 예전보다 큰 규모의 장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각종 생활용품의 발달에 따라 생활가구의 종류 또한 예전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렇듯 그 규모와 종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의 가구 배치는 좌식생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의 형식과 문화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차츰 변화되었지만, 거주자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옛 생활습속을 유지하면서 주생활공간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다.

## 2. 입식부엌의 사용

### 1) 기존의 작업 영역이 반영된 작업대 배치

주호 내부에서의 생활방식이 예전에 비해 가장 많이 변화된 공간이 바로 부엌이다. 전통주거의 부엌은 크게 찬간과 참마루의 사용 등에 따른 수납공간과 부뚜막에서 이루어지는 취사공간, 그리고 마당에서 부엌내부, 부엌 후면

11) 『한국민속대관』 8권(2003), 제5편 한국의 목가구, 서울시, 이춘일(2003), 운현궁 목가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20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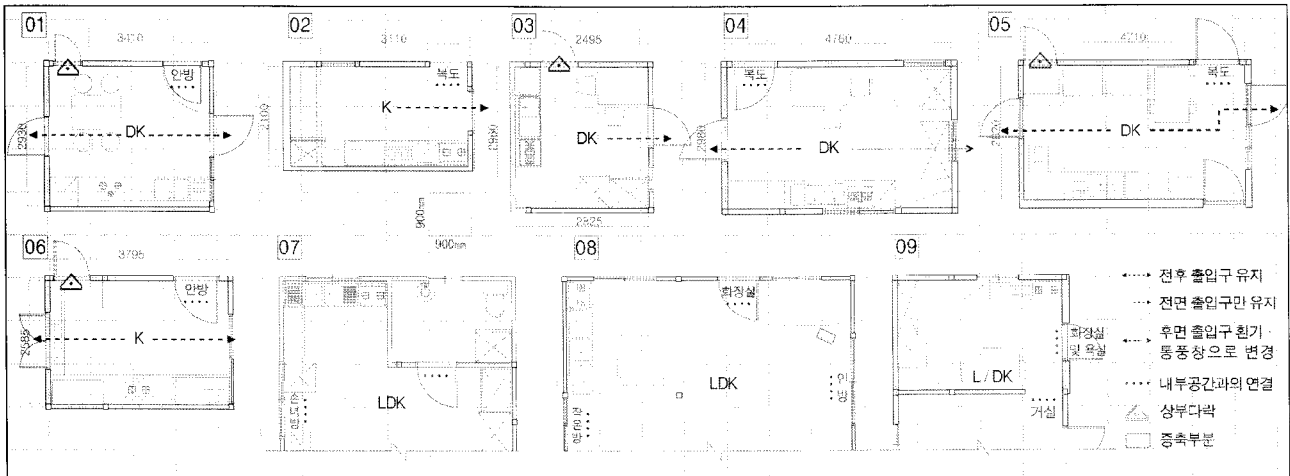


그림 13. 입식부엌의 사용

의 부속공간에서 가사행위가 이루어지는 작업공간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부엌공간의 사용은 안방과 바로 인접해 있는 동선으로 보면 안주인이 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편리한 배치이긴 하지만, 우물, 장독대, 광 등의 보조시설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동선과 기능적 측면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급수의 방법이 우물에서 수도로 발전되면서 부엌 내부 공간에서도 수도시설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가스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1970년대를 전후로 조사대상 주호의 부엌이 입식으로 개조되었다. 이에 따라 조리대·개수대·가열대 등의 작업대를 비롯한 수납장과 가전제품 등이 배치되어 사용 중이다. 부뚜막과 아궁이라는 전래의 취사시설에서 수도와 가스의 사용이라는 근본적인 주설비의 변화로 부엌공간의 사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조사대상 주호에서는 작업대를 설치할 때 기존 주거가 가지던 작업영역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래식 부엌에서 사용되던 기존의 전후 출입문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예전의 작업동선과 작업영역을 반영하여 입식화가 이루어진 경우와, 전면 출입구는 유지하고 후면은 창문으로 변경하여 채광 및 통풍, 환기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식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조사대상 중 기존의 전후 출입구를 모두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업대를 배치하는 사례는 01, 05, 06주호로, 앞마당과 부엌 후면 외부공간의 부속기능을 연계하여 작업영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04주호는 부엌을 입식화하면서 개구부의 개폐방식과 형태가 변경되었지만 그 기능은 간접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02, 03주호는 마당에서의 주출입구는 유지되는 반면 후면의 개구는 삭제된 사례이다.

또한 01-06주호들 중 03주호를 제외한 모든 주호에서 마당에서의 진입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작업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부엌공간의 형태가 장방형이고, 장변방향으로 작업대가 배치되었다. 한편, 01주호는 평면형태가 정방형에 가깝지만 작업대를 출입방향과 수평하게 배치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택의 형태, 개구부

의 위치와 그 기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보존적 측면이 강조된 사례로 판단된다.

### 2) 부엌·식당·거실 기능의 수용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여 안방에서 주로 식사를 하던 전래의 주거방식과 달리, 부엌의 입식화와 함께 식침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부엌 내부에 식탁을 도입하게 되었다. 주방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통합된 가사행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조사대상 주호는 가사행위와 식사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식당+부엌(DK)형과, 부엌이 입식화 되었어도 가사행위는 부엌에서, 식사는 안방에서 이루어져 아직까지 식침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 부엌(K)형, 가사행위와 식사행위, 가족의 단란 기능이 함께 이루어지는 식당+부엌+거실(LDK)형으로 분류된다. 조사대상 주호에서는 01, 03, 04, 05주호가 DK형으로, 단변방향 길이가 8-9자(2.4-2.7 m) 정도로 다른 주호에 비하여 다소 짧은 02, 06주호가 K형으로 나타났다.<sup>12)</sup> DK형 주호들의 부엌 역시 다소 협소한 면이 있지만,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석의 식사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단변방향의 길이가 9자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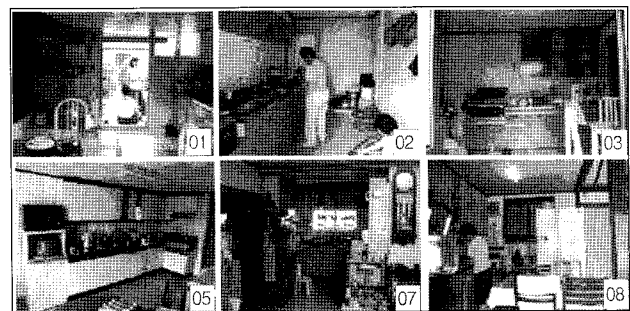


그림 12. 입식화 된 부엌공간

12) 06주호에는 식탁은 구비되어 있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선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K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주호의 거주자인 노부부의 식사행위는 실제로는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입식부엌의 사용에 있어서 기존 부엌의 단변방향으로 최소한 9자(2.7 m) 이상의 길이를 확보했을 때 DK형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기존 부엌의 안목치수가 3.11×2.10 m인 02주호의 경우 후면으로 600 mm 가량을 증축하였으나 단변방향의 안목치수가 작아 작업대만을 배치하여 K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안목치수가 2.49×2.95m인 03주호의 경우, 후면으로 300 mm 정도를 증축함으로써 단변방향의 안목치수를 9자 이상으로 확충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2인용 식탁을 배치하여 DK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작업대 및 식탁의 배치에 따른 소요치수를 기존의 단위공간 규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기존의 부엌공간 후면을 부분적으로 증축함으로써 공간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 부엌 위치가 아닌 다른 실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한 사례가 있다. 07, 08, 09주호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은 부엌이 거실(대청)과 연계하여 기능하고 있다는 공간 사용의 특징을 지닌다. 07, 08주호는 기존 대청 공간의 일부를 입식부엌으로 개조하여 가사와 식사를 거실 기능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09주호는 기존 안방 공간을 구성하던 옷방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하여 가사와 식사를 겸하고, 아랫방을 거실로 개조하여 이들 공간을 LDK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세 주호의 부엌공간 사용을 보면, 예전의 주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현대 주생활공간의 기능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해석된다. 안방의 사용자가 부엌의 주된 작업자로서 이 두 공간만이 긴밀히 연결되던 다소 한정적인 동선에서, 부엌공간을 가족 모두에게 개방된 위치로 변경함으로써 각 실과의 연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실이 된 대청공간의 일부에 입식부엌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가사작업과 식사, 가족의 단란을 위한 공간이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공동의 생활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부엌 및 식당을 대청에 수용하면서 완전한 내부화를 통한 거실로써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사대상 주호 부엌공간에서 DK, K형을 결정짓는 데에는 기존 부엌공간의 규모 특히 단변방향의 최소 길이에 따른 제한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었다. 부엌의 위치를 변경한 사례들을 통해서는 전통적 주생활공간에서 부엌이 갖는 공간적 의미보다도 현재의 주생활공간으로서 편리성을 중시하여 적극적인 변경행위가 이루어진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옛 대청마루가 완전하게 내부화 된 거실로 변화되면서 생활공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청주 구도심지역에 현존하는 ‘ㄱ’자형 한옥 중에서도 중부지방의 평면형을 대표하는 ‘옷방꺾음집’이던

서 지속적인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홉 주호의 생활공간 변용을 알아본 것이다. 조사대상 주호의 원형추정도면을 작성함으로써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개실의 연결 및 확장, 주설비의 변경, 부엌 위치 변경 등의 연유로 생활공간이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특히 안방과 그에 인접한 부엌의 생활공간 변용 양상으로 나타났다.

안방에서의 기거양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생활 위주의 주생활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부 거주일 경우 TV시청이 용이한 위치에, 홀로 거주일 경우 외부동정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이부자리가 놓여 그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홀로 거주하는 데서 기인한 방어외식의 표출로 보인다.

안방에서의 가구 사용에 있어 의복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의 증가로 가구의 크기와 종류가 예전보다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안방공간 가구배치에서 느껴지는 심미적 기능은 감소하고 실제 사용상의 편의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변용되었다. 한편, 이같은 생활상의 변화에도 아직까지 좌식생활 위주의 공간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엌의 생활공간 변용을 알아본 결과, 모든 주호에서 근본적인 주설비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입식부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엌 변화 속에서도, 예전 가구부의 위치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업대를 배치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마당에서의 진입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일자형의 작업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부엌·식당·거실 기능의 수용에 있어서, DK 기능을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공간이 갖는 칸 단위모듈이 근본적으로 제한이 되며,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분적 증축을 하면서 칸 단위모듈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LDK 기능의 수용에 있어서 부엌을 기존의 대청 위치로 옮긴 주호의 경우, 예전의 전통적 부엌공간과 달리 가족 공동공간으로서의 사용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주시 옷방꺾음집에서는 현대 주생활문화에 따라 개실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한 개실 규모의 변화, 주설비의 변경에 의한 입식부엌 사용, LDK 기능의 수용을 위한 부엌 위치 변경을 비롯하여 창호 개폐방식, 크기, 각종 마감재료 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생활공간 변용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변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옷방꺾음집이 갖는 건축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개조 및 변경을 통하여 내부 생활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 양상에 있어 현대적 생활문물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예전의 좌식생활문화가 혼재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청주시 옷방꺾음집의 생활공간 변용은 기존의 주택이 가지는 기본적인 형식과 옛 생활습속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청주대 유재 · 근현대건축사연구실(2007), 研究報告20 淸州 都市韓屋 使用實態 및 實測調査報告書, 청주대학교 유재 · 근현대건축사연구실.
2. 청주대 유재 · 근현대건축사연구실(2009), 研究報告26 淸州 都市韓屋 使用實態 및 實測調査報告書2, 청주대학교 유재 · 근현대건축사연구실.
3. 한옥공간연구회(2004), 한옥의 공간문화, 敎文社.
4. 주남철(1980),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5.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上, 悅話堂.
6. 김태영(2003), 한국근대도시주택, 기문당.
7. 주남철(2001),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8. 김평택(2007),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9. 김왕직(2008),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10. 이민경(2008), 문화재 지정 근대주택의 보존적 제사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김기정(2007), 청주 도심한옥의 증개축 사례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송인호(1990), 都市型韓屋의 類型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조성진(2003), 도시한옥의 주생활양식 사례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최성수(1986), 開港以後 住宅의 變化構造에 관한 研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김민선(2003), 도시형한옥의 구축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송동준(2007), 도시형 한옥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이민경 · 김태영(2008), 청주 도시한옥의 증개축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2), 83-91.
18. 朝鮮建築會(1941), 朝鮮と建築, 20(4),
19. 김명선(2003),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 161-169.
20. 김홍식 · 이해성(1988), 19세기 陽宅論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잡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6), 93-106.
21. 강순주(2005), 부엌공간 사용 행태로 본 주거문화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7-24.

접수일(2009. 7. 17)

수정일(1차: 2009. 11. 4, 2차: 11. 17)

게재확정일자(2009. 11. 26)